My Impression on 1974 Japan Library Convention

日本全國圖書館大會 參觀記

朴 熙 永
東國大圖書館 司書課長

지난 11月 5日부터 13日까지 9日間 日本을 訪問할 機會가 있었다. 日本을 訪問하였다고는 하지만 東京에만 있었기 때문에 東京의 9日間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極히 짧은 期間의 訪問을 하고 나서 글을 쓴다는 짓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라고 내 自身 생각되어 이 글을 쓰기를 망서렸으나 아무리 짧은 期間의 旅行이긴 하였지만 몇가지 꼭 記錄해 두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不得已 貴한 紙面을 받게 되었음을 甚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招 請

日本圖書館界 發展을 爲하여 많은 活躍을 하고 있는 분으로서 우리나라 圖書館界 人士들에게도 많은 親知를 가지고 있는 東京電機大學 敎授이며 圖書館長인 藤田豊氏의 따뜻한 友情에 依하여 이번에 招請되었던 것이다. 日本圖書館協會 短期大學圖書館部會가 往復旅費와 會議期間中의 費用을 一切 부담하였고 남어지 所要되는 費用은 藤田豊氏 個人이 부담하였다. 目的은 8年만에 東京에서 開催된 日本 全國圖書館大會를 參觀하고 새로建築된 圖書館 數個館을 視察하고 日本圖書館界 人士들과 親交를 맺어서 1976年 서울에서 開催될 豫定으로 있는 IFLA總會開催에 도움이 되고 日本館界와 親交를 두텁게 하여 우리나라 圖書館 發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되었으면 하는 것이 本人이 다너은 目的이였다. 本人의 招請에 關한 일은 日本圖書館協會 理事會에서 決議가 되었는데 文化交流事業을 하고 있는 國際文化財團의 會長이 招請하였던 것이다. 本紙面을 빌려 藤田豊氏에게 깊은 謝意를 表하며 아울러 日本圖書館協會 事務局 短大圖書館部會 國際文化財團에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出 發

11月 16日부터 美國 Washington에서 開催된 IFLA總會 韓國代表의 한분인 張一世 先生과 함께 1時 JAL機便으로 11月 5日에 金浦를 出發하였다. 元來는 本人 혼자서 10時 KAL機便으로 訪日할 豫定이였었으나 IFLA 日本代表가 日本을 出發하기 以前에 만나서 相議해야 할 主要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張一世 先生과 함께 出發하였던 것이다. 張先生이 Visa없이 72時間 日本에 滯在할 수 있으려면 1時機를 타야 하므로 同行하기 爲하여 本人도 不得已 飛行機를 變更하였는데 1時機가 1時間을 늦게 出發하였기 때문에 3時 50分에 日本 羽田國際空港에 到着하였다. 張先生은 72時間 사이에 日本代表를 만나 結果를 알고 Washington으로 가야 했다. 空港에는 藤田氏 兄弟가 마중나와서 우리 두사람을 맞이하여 주었다. 藤田氏의 등생은 韓國古代史에 興味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韓國을 訪問한 일이 있는 분이다. 2年前 藤田氏가 訪韓하였을 때 藤田豊氏 동생 그의 누이동생 세사람이 訪韓하였는데 이 세분이 모두 本人의 집을 訪問하여 주었고 집에서 소찬이나마 저녁을 함께 하며 즐긴 일이 있어서 親熟한 사이다. 2年만에 만나게 되어 반가웠다. 藤田氏 兄弟와 張先生 그리고 本人 4名이 豫約해 두었다는 宿舍인 お茶の水驛 近處에 있는 湯島會館으로 갔다. 택시의 基本料金이 280원이고 高速道路通行料金이 250원이였다. 會館앞에서 택시를 내려서 택시料金을 보니 3,600원이였다. 잠시後 藤田氏의 女동생이 찾아와 주어서 5名이 함께 저녁을 대접받었다. 食事後 이분들과 헤어져서 張先生과 둘이서 市內구경을 나섰다. 다음驛인 秋葉原에 가보았다. 8時가 조금 지났는데 商店들은 거의 門을 닫고있었다. 점포가 門을 닫고 있어 거리는 어둠 침침하고 쓸쓸하다. 다음에는 劇場街로서 有名한 淺草로 갔다. 그렇게 많었던 劇場이 보이지 않어 길을 잘못 들어섰나 했으나 거리는 맞었다. 劇場들은 없어지고 여러種의 다른 店舖였다. 劇場이 몇개 보이기는 하지만 일부러 찾아야만 알 程度로 줄었다. 몇개 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보았더니 9時쯤 되었는데 入場券을 팔지 않고 있어 안에서 映畵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다음에는 上野로 갔다. 거리가 어둡고 쓸쓸하기만 하였다. 本人은 7年만의 訪日이였는데 밤의 東京은 7年前에 보았던 모습과 너무나도 判異하게 變하여 있었다. 밤의 東京거리는 前의 모습을 全然 찾

아 볼 수 없었다. 구경할 것도 없고 더 다녀볼 必要가 없어서 宿所로 돌아갔다. 宿所 바로 앞이 東京齒科大學이였는데 大學內 各建物들에는 電氣가 많이 켜져 있었다. 4層인가의 어떤 房에는 圖書가 꽂혀 있는 書架가 보였는데 짐작컨데 研究室인것 같았다. 하여간 大學建物에 電氣가 많이 켜져 있는 것을 보니 늦도록 工夫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고 느꼈다.

全國圖書館大會

11月 6日 藤田氏의 案內로 全國圖書館大會場인 上野驛前에 있는 東京都 文化會館으로 갔다.

日本의 全國圖書館大會는 1906年부터 始作한 大會로서 1939年의 第 33回로 中斷하였다가 1948年부터 다시 開催하여 今年이 第 27回가 된다. 그러니까 1945年以前에 開催되었던 大會까지 合하면 第 60回가 되는 셈이다. 그래서인지 回數로 表示하지 않고 昭和 49年度라고 年度만을 表示하고 있었다. 이번 大會의 參加人員數는 印刷된 프로그램에 依하면 1,253名의 參加名單이 나와 있었다. 今年度 大會의 슬로간을 보면

○生活속으로 圖書館을!

○圖書館相互協力을 促進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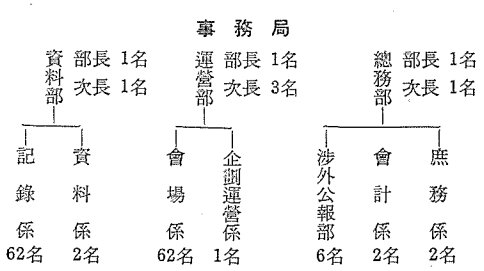
의 두가지 였다. 大會의 運營機構는

名譽會長
會長
運營委員會
事務局

으로 되어 있었고 大會役員은

大會名譽會長=圖協會長
大會長=東京都 敎育長
大會副會長=圖協理事長
運營委員會
委員長=東京都立 中央圖書館長
副委員長=圖協事務局長
〃 =東京都 公共圖書館協議會 副會長
委員=16名의 圖協各部會 任員
事務局
事務局長=1名
事務局次長=3名

그리고 事務局의 各部署와 人員은 다음과 같다.



運營委員長이 東京都立中央圖書館長이 되어 있는 關係로 大會運營을 爲한 事務局要員은 東京都立 中央圖書館職員이 主가 되어 있었다.

大會는 共通部會와 普通部會로 나누어져 있는데 各部會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共通部會
第1部會 住民과 圖書館
第2部會 身體障害者에 對한 圖書館 서어비스
第3部會 出版과 圖書館
第4部會 圖書館員의 敎育

普通部會
第1部會 公共圖書館
第1分科會 圖書館의 全域서비스計劃
第2分科會 公共圖書館에 있어서의 行政資料의 收集, 保存과 서어비스
第3分科會 東京多摩地區 圖書館調査(4코스)
第4分科會 私立公共圖書館의 問題點을 研究討議.
第2部會 學校圖書館
日本의 敎育風土속에서 學校圖書館의原點을 찾자.
第3部會 短期 大學圖書館部會
短期 大學圖書館의 改善
第4部會 大學圖書館
大學圖書館相互의 協力體制
第5部會 特殊專門圖書館
新聞·雜誌·圖書資料 등의 除籍·廢棄基準 및 分擔保存 등에 關하여
第1分科會 企業體 調査研究機關 團體圖書館
第2分科會 地方議會圖書館
第3分科會 官公廳圖書館
第6部會 鄕土資料
利用者의 廣域化에 對處하는 鄕土資料의 取扱法
第7部會 圖書館學敎育
새로운 圖書館學 敎育의 創造
第8部會 參考奉士
情報化社會에의 進展이 顯著한 今日에 即應한 最近의 레파렌스·서비스의 動向과 새技術에 對한 事例發表와 討議
第9部會 整理技術
圖書整理의 實態調査를 土臺로 今後의 方向에 對한 檢討
第10部會 圖書館員의 問題研究
圖書館員의 專門性이란 무엇인가
地11部會 어린이의 讀書
圖書館과 文庫其他의 協力에 對하여

以上과 같은 여러 部會가 同時에 開催되었는데 會議場所가 10個所가 된다. 午前으로 開會式이 끝났는데 藤田 氏의 案內로 張 先生과 함께 圖協 管原總務部長을 만나 IFLA日本 代表와 만나게 해 줄것을 부탁한 바 7日午後에 東京都立 中央圖書館에서 만나기로 約束하고 午後에 本人은 短大部會에 參席하였다. 部會長이 短大部會 今年度事業報告를 하였는데 今年度事業의 하나로 本人을 招請하여 이 자리에 參席하였다고 本人을 紹介하였다.

本人은 招請된 詳細한 內容을 알게 되어 同部會에서 謝意를 表하였다. 會議中 感銘 깊었던 일은 短期大學圖書館 基準令의 改正草案을 文部省擔當官이 檀上에서 詳細하게 說明을 하고 이에 對하여 質疑를 하고 答辨하는 것을 본 일이다. 이 場所에서 日本十進分類法의 著者인 森淸 氏를 만나 몇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일은 本人으로서 記憶하여 두고 싶다.

木原正三堂

張先生과 함께 圖書館專門用品商인 木原正三堂를 訪問하였다. 前番 訪日時에는 伊藤伊라는 用品商을 訪問한바 있었다. 日本의 用品商은 伊藤伊, 木原正三堂, 九善의 三個商이 있다고 한다. 東京都內에는 公共圖書館만 해도 100個館이 넘는다고 하는데 全國의 各種別 圖書館을 合하면 相當數에 達할 것인데도 用品商이 單셋뿐이라고 한다. 木原正三堂는 4層의 아담한 建物을 新築하여 使用하고 있었는데 一層은 直賣所이고 二層이 事務室이였다. 이곳에서 圖書館用品 몇가지를 샀는데 그중의 한가지만을 紹介한다면 책등에다 請求番號를 쓰는데 所要되는 테이프와 그것으로 쓴것을 지워지지 않도록 칠하는 락카이다. 책등에다 請求番號를 쓰는 方法에는 몇가지가 있는데 종이로 만든 딱지에다 쓰던가 打字해서 붙이는 레이블이 있고 포스터칼라 등을 붓에다 칠하여 請求番號를 쓰는 方法이 있고 또 電氣펜이라는 것으로 有色테이프를 대고 쓰는 方法등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本人이 산것은 金色 銀色의 두 種類가 있는데 그 테이프를 책등에다 대고 볼펜으로 그대로 쓰면 책등에 깨끗하게 써지는 方法의 것이다. 이것으로 쓰고난 다음에 「에어락카」라는 것으로 쓴 클씨위에다 여름에 모기약을 뿌리는 것과 같이 눌르면 락카가 噴霧하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方法인것 같어서 샀다. 모든 方法에는 一長一短이 있을 것으로 알지만 우리나라도 무엇인가 새로운 方法을 硏究하고 開發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바 있다.

아시아經濟硏究所

張先生과 함께 아시아經濟硏究所 資料室을 訪問하였다. 이곳에는 高麗大學校에 와서 硏究한 일이 있었던 花房征夫란 분이 있어서 親切한 案內를 받어 자세히 구경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는 카드나 圖書를 國家別로 排列하고 있었는데 그데서 韓國關係資料가 한곳에 모여 있었다. 여러 銀行의 調査月報를 비롯하여 硏究에 參考가 되는 여러 定刊書가 創刊號부터 빠짐없이 收書되여 製本해 있었다. 여러 나라의 日刊新聞도 相當히 많은 種類를 收書하고 있었는데 新聞이 收書되면 即時 마이크로필림으로 撮影하여 필림을 永久保存하며 新聞은 約 一個月이 지나면 廢棄한다고 한다. 그래서 新聞뿐만이 아니고 많은 資料를 마이크로필림으로 하는 關係로 마이크로필림이 相當이 많이 保管되어 있었다. 資料中의 特色이 있다고 보여진 것으로 亞細亞 各國의 細密한 地圖가 保管되어 있었는데 日本에서는 가장 상세한 地圖를 所藏하고 있다고 하며 地圖가 많어서 인지 地圖의 保管狀態가 特殊하여 參考가 되었다.

東京都立中央圖書館

IFLA總會 日本代表를 이곳에서 만나기로 約束하였기 때문에 張先生과 함께 東京都立 中央圖書館을 訪問하였다. 이 圖書館은 港區南麻布의 有栖川宮記念公園안에다 極히 最近에 新築한 公共圖書館으로서 人文·社會·自然科學 등 大主題別로 層을 달리하여 開架式으로 되어 있는 圖書館이다. 開架式이라고 하지만 全藏書가 開架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最近資料만 開架되어 있고 3年이 지난 資料는 書庫안에 넣고 이것에 對한 閱覽은 閉架式으로 되어 있다. 이 圖書館의 館長은 女子였다. 圖書館人이 아니고 行政官吏라고 하여 若干 失望하였다.

IFLA總會 日本代表를 만나지 못하였고 日本圖協의 管原總務部長만을 만나게 되었는데 IFLA에 對한 여러가지 意見을 交換하였고 韓國側의 생각을 傳達하였던바 事務局長, 理事長과 相議하겠다고 約束하고 지난 5月에 東京에서의 IFLA 理事會 이야기를 들었다.

歡迎會의 밤

本人을 招請하는데 애써준 藤田豊氏의 本職은 東京電機大學 敎授兼圖書館長인데 이분이 關係하는 團體는 다음과 같다.

日本圖書館會 大學部會 委員
日本圖書館協會 短大分科會長
日本私立短期大學協會 敎育行政委員
日本私立短期大學協會 敎育行政委員, 圖書館委員
東京都私立短期大學協會 圖書館委員

藤田氏의 알뜰한 주선으로 7日 午後 5時부터 私學會館에서 「朴 熙永氏 歡迎懇親 夕食會」라는 오붓한 즐거

운 밤이 마련되었었다. 이미 10月에 案內狀이 發送되어 參席與否를 받고 準備된 모임으로서 10名이 參席해 주었다. 이날 모인 參席한 사람들의 名單은 다음과 같다.

加藤宗厚 前上野圖書館長
駒澤大學 名譽圖書館長
酒井悌 國立國會圖書館 總務部長
中村初雄 慶應義塾大學 敎授
片山喜八郎 國學院栃木短大 圖書館長
津久井安天 日本圖書館協會 參與
學習院大學圖書館 囑託
秋岡梧郎 日本圖書館協會 顧問
關野眞吉 獨協大學圖書館
金子量重 美文化센터
田中初夫 東京家政學院大學 敎授

이날 저녁에 參席한 분들 끼리도 오래간 만에 한자리에 앉었다고 하며 이와 같이 모이기가 힘드는 일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 中의 몇사람은 80客이 되는 분도 있었는데 圖書館學에 關한 여러 著書를 著述한 日本圖書館界에서 元老에 屬하는 분이 몇분 있었다. 特히 加藤宗厚氏는「圖書分類法要說」로 이름이 익숙한 분이다.

張先生과 함께 參席하게 되었는데 本人은 答辭를 通해서 韓國圖書館界에 對한 이야기를 하였다. 1945年 終戰과 더부러 獨立後의 圖書館이 걸어온 길을 이야기하였고 6·25事變後의 새로운 圖書館學이 導入된 後의 圖書館의 發展相을 이야기 하였다. 圖書館員의 養成과 敎育에 對하여 이야기 한바 座中의 한사람은 日本과韓國의 人材養成問題를 比較할 때 日本보다는 韓國이 方法과 內容面에서 높이 評價해야 하며 日本의 圖書館界가 反省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圖書館員 敎育方法과 過程을 이야기 한바 日本에서는 今年度에 博士學位過程을 申請하였으니까 來年부터 實施된다면 韓國이 日本보다 이것은 앞서게 되었다고 한다. 圖書館法도 우리는 單一法이라는 등등 이야기와 意見을 交換하였다. 하여간 圖書館의 數爻나 藏書나 建物 등에 있어서 日本은 韓國과 比較할 수 없게 앞서 있지만 圖書館界發展을 爲한 많은 有用한 役軍을 養成하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힘이 되고 協會를 中心으로 해서 熱意와 誠意로 各自의 圖書館을 發展시키고 나아가서는 韓國의 圖書館界를 發展케 하는 힘을 갖이고 있음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本人으로서는 日本의 여러 圖書館人을 만날 수 있었고 韓國의 圖書館界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날 밤의 歡迎會는 잊을수 없는 즐거운 저녁이였 었다.

加藤宗厚氏는 이날 저녁에 나에게 여러 册의 圖書와 팜프렌을 선물로 주었다. 이날 받은 선물은 어떠한 物件과도 바꿀 수 없는 고마운 선물이였다. 參席했던 秋岡氏는 自己집에서 몇일 묵고 가라고 하였고 또 片山氏도 자기 집에 와서 몇일 묵고 가도록 하라고 請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國籍은 다르나 圖書館人이기 때문에 서로가 느껴지는 友情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이날 저녁에 받은 圖書中 色다른것 一部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1. 帝室圖書目錄 387p
   宮內府奎章閣圖書課
   隆熙3年11月印行
2. 朝鮮書籍目錄 78p
   金澤壓三郎著
   明治44年3月發行
3. 朝鮮全圖
   小藤文次郎, 金澤庄三郎 共編
   東京帝圖大學發行
   1903年發行

(1)의 帝室圖書目錄은 그리 흔한 것은 아니나 고마웠고 (2)는 흔히 있었던 것이다. (3)은 한장의 地圖인데 地名이 全部 로마字로 記入되어 있다. 例를 들면

서 울——Seoul
大 邱——Tai-ku
釜 山——Pu-San
木 浦——Mok-pho
全 州——Chyun-jyu
水 原——Syu-uon
光 州——Koang-jyu
淸 州——Chhyung-jyu
濟 州——Chyoi-jyu
울릉도——Ul-Leung-Do
京 畿——Kyong-geui
江 原——Kang-Uön
忠 淸——Chhyung-Chhyöng
慶 尙——Kyöng-Syang
全 羅——Chyol-La

國立國會圖書館

張先生과 함께 國立國會圖書館을 訪問하였다. 7年前에 이 圖書館을 訪問하였을 때에는 半만이 完成되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 이미 完成되어 있었다. 總務部長을 만났다. 國立國會圖書館이 IFLA의 會員이기 때문에 이 圖書館의 IFLA總會 參席者를 만나기 爲하여서인데 이곳 參席者는 이미 出發하여 없었다. 歐羅巴를 旅行中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訪問하게된 目的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意見을 交換하였다. 지난 5月에 있었던 IFLA 理事會가 바로 이곳에서 開催되었었는데

總務部長이 그 會議에 參席하였다고 하여 여러가지 當時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들의 뜻을 傳하면서 될 수 있으면 歐羅巴에 가 있는 參席者들에게 總會以前에 우리의 뜻을 傳하여 줄것을 부탁하였다. 時間이 없어서 대강만을 돌아보고 나서 張先生과 羽田空港으로 갔다. 張先生은 2時半 飛行機로 向美해야 했는데 總務部長의 배려로 車를 내주어서 이것을 타고 羽田空港으로 갔다. 途中에 車가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1時半이나 되어서 空港에 到着했다. 空港에서 짐에 對한 處理가 잘 못되어 먼 거리를 고생해서 出發時間을 겨우 맞추었는데 張先生을 보내고 나니 한없이 허전한 것을 느끼게 되었다. 德分에 점심을 굶었다.

駒澤大學

駒澤大學은 佛敎宗團 設立의 大學으로서 本人이 勤務하고 있는 東國大學校와는 姉妹結緣을 맺고 있는 大學이다. 同大學은 昨年에 90週年을 맞아 記念事業의 하나로 圖書館을 新築하였다. 이 圖書館은 日本圖書館界의 元老인 加藤宗厚氏의 圖書館生活 50年의 總決算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加藤氏는 名譽館長이였는데 每日 出勤하고 있었다. 前날 저녁 本人의 歡迎會에서도 만났지만 本人의 訪問을 반겨 주었다. 秋岡悟郎氏도 本人과 時間을 같이하여 이곳에서 다시 만났는데 加藤氏는 老軀를 무릅쓰고 圖書館의 구석구석을 親切이 案內 說明해주었다. 이 圖書館의 特徵은 書庫가 地下에 들어가 있었는데 地下 2層 書庫까지 案內해 주었으며 이 大學의 敎授部長인 櫻井敎授에게 까지 함께 가 주었다. 前날 저녁에도 圖書를 선물 받았는데 이날도 또 몇冊을 선물받게 되었다. 日本의 言語學者였던 金澤庄三郎氏의 藏書가 駒澤大學에 寄贈되었는데 그 안에서 우리나라 碑石의 拓本 두장과 仁祖時代사람들인 崔鳴吉, 李明漢, 李敏叙, 朴世堂, 吳道一, 崔後尙, 六名의 親筆書簡을 받게 되었다. 文化財라고 거창하게 말할 수 없으나 비록 종이 쪽지에 不過하지만 우리 祖上의 것을 우리 나라로 되찾어 올수 있었던 기쁨을 加藤氏는 本人에게 안겨 주었다는 것이 기뻤다. 이밖에도 金澤庄三郎氏의 우리말 硏究論文의 拔萃 約 10篇을 함께 받었는데 이것 外에도 加藤氏의 善壽記念圖書館關係論文集과 論文 拔萃 10餘篇을 함께 받었다. 이 모두가 藤田氏가 주선하여준 結果라고 생각되어 새삼 藤田氏에게 고마움을 느껴진다. 加藤氏에 對하여 좀더 쓴다면 加藤氏는 1895年 7月 18日生이니까 今年 80歲이다. 1925年에 圖書館講習所를 修了한 後 1971年 76歲로 停年할 때까지 46年間을 日本圖書館學과 圖書館 發展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이다. 單行本의 著書만을 추려본다면,

1928 Merviel의 分類規程, 碼筆書方の指導方案
1930 日本件名標目表
1935 圖書分類法關係資料
1939 圖書整理入門
1939 比較分類法概說
1941 圖書分類法要說
1948 國立圖書館の 現狀
1949 圖書の分類, 件名目錄
1950 圖書分類法要說 改訂版
1951 件名目錄 改訂版, 都道府縣議會圖書館の 現狀
1953 圖書の 分類 改訂版
1957 件名作業
1959 圖書分類法要說 改訂增補版, 比較分類法概論
1962 圖書の 分類 改稿版, 農協文庫の 手びき
1966 私の 圖書館生活
1962-63 正法眼藏要語 索引

등이 있고 여러 雜誌에 發表한 論文의 數는 100餘篇이 된다. 다음은 加藤氏의 圖書館生活을 추려 보면

1925 帝國圖書館 囑託
1930 帝國圖書館 司書
1940 富山縣立圖書館長
1944 東京縣立深川圖書館長
1948 國立圖書館長
1949 國立國會圖書館支部 上野圖書館長
1959 駒澤大學敎授
1960 駒澤大學圖書館長
1971 停年退職 駒澤大學 名譽圖書館長 兼 兼任講師

日本圖書館協會

張先生이 渡美하신 다음날 藤田氏와 함께 日本圖協을 正式으로 訪問하였다. 世田谷公園 가까운 곳에 5層으로 單獨建物을 新築하여 있었다. 圖協建物 新築에는 全國圖書館人들의 誠金도 들어가 있다고 하니 圖書館人들로 볼때 文字그대로 우리들의 協會가 된다고 하겠다. 事務局長은 出他中이어서 管原總務部長을 만났다. 1976年 IFLA總會 韓國開催에 對한 日本의 正式意思에 對하여 日本圖協이 相議한 結果 日本은 韓國開催를 支持하기로 決定하였다고 하며 代表에게 이러한 뜻을 傳하였다고 말했다.

協會 建物은 조용한 곳에 있었고 아담했다. 3層에 있는 두개의 다다미房은 地方에서 出張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했다고 한다. 참으로 좋은 着想이라고 생각되었다. 半 地下層은 어린이 圖書館으로 使用하고 있었다.